

#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 Caregiver Burden and Rewards in New Generation and Middle-aged Coupl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金明子  
강사 安善英·韓廷和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Kim Myung Cha

Lecturer: Ahn Seon Young · Han Chung Wha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aregiver burden and rewards in new generation and middle-aged couples.

Data were collected from 207 new generation couples, and 196 middle-aged couples, who had either of older parents and lived in Seoul.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burden were constituted with restriction of privacy, physical burden, strain, psychological burden, economic cost, and guilt. The rewards were constituted with recognition, pride, maturity, improving relationship, and assistance of household and childcare.

2. The caregiver burden of new generation and middle-aged wives were higher than husbands. However, the caregiver rewards of new generation and middle-aged husbands were higher than wives.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1996년도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3. The caregiver burden of middle-aged husbands were higher than new generation husband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ew generation and middle-aged wives.

4. The caregiver rewards of middle-aged wives were higher than new generation wiv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ew generation and middle-aged husbands.

## 1. 서 론

한국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가족의 형태나 기능등 구조적인 면에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념적인 면에서는 전통사회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여전히 잔재해 있다.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5.5%로, 2000년대에는 6.8%, 2020년에는 12.5%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사회부, 1994).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동일한 가족내의 세대수가 증가하여 4세대 가족 심지어는 5세대 가족을 이룸에 따라 며느리는 시부모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인 조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간이 증가하게 되었다(Bengtson, 1990). 이처럼 노부모 부양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이나 복지차원의 부양정책이 따로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세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직업활동에서 오는 다중 역할로 인하여 부양 부담감은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되었다.

Mammen과 Sanders(1992)는 노인가족의 세대간의 불공평성에 대한 연구에서 젊은 세대와 중년기 성인들은 노부모와의 교환관계에서 자신의 보상감이 불충분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긴장과 갈등을 낳게 된다고 하였으며, 노부모 역시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공평성이 존재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상호호혜성이 부양 부담감, 만족감과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위하여 행하는 부양을 의무수행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은, 노

부모를 의존적이며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령층으로 자칫 잘못 이해하여 '요구만 하는 세대' 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왜곡된 정의를 내릴 소지도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부모가 성인자녀를 위해 베푸는 기여나 도움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노령자 하위집단별로 다양하게 예상되는 양세대간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손승영, 1992 : 265)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모든 노부모가 성인자녀의 부양에 의존하지는 않으며 노부모의 연령, 성별, 건강, 경제적 자원, 자녀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양육 등 노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노부모에 대한 역할기대도 바뀌어감을 알수 있다.

성인자녀의 입장에서 노부모의 부양은 과중한 부담인 동시에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는 심리적 보상이 따르며, 또한 노부모를 부양하는 행동에는 보상의 잠재적 원천이 많이 있다(Cicirelli, 1983; Horowitz, 1985; Scharlach, 1994; Walker, 1992)고 한다.

Mathews(1988)도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세대간의 상호 관계 유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노부모가 의존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과 보상감이라는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노부모 부양문제를 조명해 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내에서 노부모 부양에 관한 교환이론의 적용은 이제 시작 단계로 심리적 보상감에 관한 연구는 거

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인주의 가치관을 지닌 신세대 부부와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닌 노부모, 그 중간에 처한 중년기 부부의 부담감과 보상감은 다를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신세대와 중년기를 대상으로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의 내용을 밝혀내고 분석함으로써 세대간의 차이와 부부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노부모 부양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성인자녀와 노부모 관계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신세대·중년기 부부와 노부모 부양

신세대와 중년기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나 본연구에서는 신세대를 1960년대에 출생하여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성장한 세대로, 연령상으로는 35세 이하의 기혼자로 보았다.

신세대는 중년기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려온 세대로, 출산율 저하와 핵가족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에서 사회화되었고, 합리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개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이 젊은 세대라기 보다는 성장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신세대는 노부모 부양의식은 물론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과 부담감도 중년기와는 차이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신세대의 경우, 맞벌이 등으로 노부모의 가사도움을 많이 받으며, 노부모의 연령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노부모는 건강한 편이다.

한편 중년기는 본 연구에서는 40-55세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해방전후, 6·25전후에 출생하여 사회적 혼란과 격변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세대로 가족주의를 바탕으로한 장유유서, 효, 혈연증시등의 가치를 선호한다.

중년기의 부모들은 연로하며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이 성인 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자신의 노화과정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과 다중역할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큰 세대(Brody, 1981; Lang & Brody, 1983; Stoller & Pugliesi, 1989)이다.

Brody(1985)는 현재 자식으로서의 책임은 다하나 자신들이 노인이 되어서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중년기 부인들이 겪는 가치의 갈등과 다중 역할로 인한 어려움을 '중간에 처한 여성(women in the middle)'이라고 하였으며, 중년기에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규범적인 경험(normative experience)'이 되었다고 하였다.

가족주의 가치관, 부양의무감, 부양행동을 연령별로 비교한 연구(김송애·조병은, 1991)에 의하면 모두 30대의 경우 낮게 나타났으며,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젊은 며느리들 보다 40대 이후의 중년기 부인들이 시부모 부양에 대해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부모의 연령이 많아지면 경제력도 없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시부모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년기 위기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송현애·이정덕, 1995).

김명자(1992)에 따르면, 중년기 부인의 경우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일상적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은 경우에 부인의 복지감 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년기 부인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증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그에 따르는 심리적 보상감 또한 수반되는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Spitze, Logan, Joseph와 Lee(1994)는 기존의 노부모 부양 부담감이 여성에게 초점을 두었고 대부분의 부양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노부모 부양을 당연히 규범적인 일로 생각하나 남성은 부양에 대한 준비가 안된 상태이며 따라서 노부모 부양은 남성에게 더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2. 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교환이론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원천이 호혜성에 있다고 간주하여 대인관계를 대가(cost)와 보상(reward)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80년대에 들어와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Mutran & Reitzes, 1984; Shehan & Dwyer, 1989; Sussman, 1985).

노부모 부양은 성인자녀의 개인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부양의무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제재는 성인자녀로 하여금 노부모 부양의무를 수행하게 만든다고 한다(Brubaker, 1985; Finey, Roberts & Banaha, 1988). 그러므로 효를 바탕으로 하는 노부모 부양 규범이 여전히 강한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 부양을 잘한다는 것은 가족, 친척으로 부터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보상감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고 이것은 대가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노부모 부양에 따르는 부담감은 걱정, 좌절감, 긴장, 유감, 압도당하는 느낌, 감정적 소모, 초조, 무력감(Cicirelli, 1983), 친구나 사회로 부터의 소외감(Lawton et al., 1991), 좌절, 죄의식, 짜증, 사랑하는 부모의 쇠퇴를 지켜 보는데서 오는 근심과 같은 감정적 대가(Abel, 1986; Archold, 1983; Cantor, 1983; Mammen & Sanders, 1992; Quinn, 1983; Robinson, 1983)와 시간 부족, 사생활 제한, 육체적 부담과 같은 신체적 대가(Brody, 1990; Horowitz, 1985; Scharlach, 1994),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대가등이 있다(Motenko, 1989; Thompson et al, 1993; Walker, 1992)고 하였으며 따라서 부담감은 다차원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으로서는 부양자가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을 터득할 수 있고, 가족의무를 충족시킴으로써 노부모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며(Abel, 1986; Archbold, 1983),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자녀로 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을 들수 있다(Motenko, 1989).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화하게

되며, 노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거나(Stoller & Pugliesi, 1989), 노부모로 부터 가사나 육아의 도움을 받으며, 노부모가 최선의 부양을 받고 있다는 확신감, 노부모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데 대한 만족감, 개인의 종교 또는 도덕적 원리에 따른 생활에서 오는 만족감, 인생에 있어서 잠재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과 의미를 강화한다(Brody, 1990; Cicirelli, 1983; Horowitz, 1985; Lawton et al., 1991; Mammen & Sanders, 1992; Motenko, 1989; Ory, 1985; Scharlach, 1994)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상이 감정적이며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제안(Walker, 1992) 하였으며, Moss (1987)는 노부모 부양이 부담만은 아니며 도전이며 성취의 경험과 경쟁을 나타내는 기회라고 하였다.

## 3.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의 관련 변인 고찰

### 1) 연령

부양자의 연령과 부양 부담감간의 관계를 보면, 부양하는 성인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세대간의 관계가 긴장되고 갈등이 많아진다고 하였다(Montgomery, Gonyea & Hooyman, 1985; Suito & Pillemer, 1988; Umberson, 1992). Walker와 그의 동료들(1992)은 연령이 적은 딸일수록 노부모 부양에 대한 염려는 많지만 큰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연구(고선주, 1990; 조병은·신화용, 1992)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혜택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러 선행 연구들(Bengtson, 1979; Hagestad, 1987; Suito & Pillemer, 1988)은 성인자녀의 연령 증가가 부모 자녀간 이해의 폭을 증가시켜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를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반면, Lang과 Brody(1983)는 중년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부모에 대한 도움의 양도 많아져 40-49세된 여성이 행하는 노부모에 대한 도움 시간은 주당 3시간이며, 50세이상 된 여성들은 주당 15.3시간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양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노부모의 연령도 증가하여 실생활에서 의존이 높

아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Fitting, 1986).

## 2) 성별

성별에 따른 부양효과를 조사한 Young과 Kahana (1989)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며, 건강약화와 정신적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Robinson(1983)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긴장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외국의 많은 연구(Cantor, 1983; Cicirelli, 1981; Horowitz, 1985; Johnson, 1983; Noelker & Poulshock, 1982; Robinson & Thurnher, 1979)가 성별에 따른 노부모 부양 부담감에 대한 차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내연구(박경란, 1988; 옥선화 등, 1994)에서도 부양과정에서 며느리가 남편인 장남보다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 3) 기타

Sheehan과 Nuttall(1988)은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할 때 대가가 더 커진다고 보고하였으며 Stoller과 Pugliesi(1989)는 노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는 물리적 공간과 개인적 자유의 상실, 프라이버시, 자율성, 수면등의 부족으로 항상 대기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한편 노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부양할 경우, 두집을 왕래하면서 부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Fischer, 1984) 대신에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성미애, 1991; 윤순덕·한경혜, 1994; 조병은·신화용, 1992)에서는 노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분거하는 경우보다 부담감이 클 뿐 아니라 보상과 관계의 질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Scharlach(1994)는 취업을 한 부양자가 비취업 부양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양 부담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Pett(1988)에 의하면 취업을 하고 있는 성인 자녀의 부양책임은 크지만, 부담과 생활만족면에서 볼 때 비취업 성인자녀와는 차이가 없었다. 취업은 부양에서 오는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외부적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는 것이다(이형실, 1993,

재인용).

피부양자가 보다 의존적일때(Robinson, 1983), 부양자의 수입 수준이 높을때(Montgomery et al, 1985), 자녀수가 많을수록(Pett et al, 1988) 노부모 부양자가 느끼는 역할긴장이나 정서적 대가, 부양부담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세대의 경제적, 신체적 자원과 기혼자녀세대의 부모 부양 부담감은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성미애, 1991).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노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대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담감-보상감에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노부모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조병은·신화용, 1992).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과 보상감은 부부간,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은 어떠하며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신세대 남편과 중년기 남편, 신세대 부인과 중년기 부인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은 어떠하며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신세대 남편과 중년기 남편, 신세대 부인과 중년기 부인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은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시)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생존해 계시고 자녀가 한 명이상인 신세대 부부(35세이하)와 중년기 부부(40-55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신세대 부부 45쌍과 중년기 부부 45쌍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는 199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2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신세대 부부의 경우, 구로구의 D유치원, 서초구의 P병설유치원, 관악구의 B어린이 집, 성북구의 S유치원 원아들의 부모 300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년기 부부는 S여자대학교, K전문대학, M여고, Y여고의 부모 300쌍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를 제외하여 신세대 부부 207쌍과 중년기 부부 196쌍을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부양 부담감과 보상감 척도는 선행연구(Hinrichsen et al, 1992; Kosberg et al, 1986; Lawton et al, 1989; Scharlach, 1994; Walker et al, 1992)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부양 부담감 척도는 예비조사시 31문항을 작성하여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주요인으로서 묶이지 않은 3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28문항을 선정하였다. 보상감 척도는 예비조사시 19문항을 작성하여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인타당도와 신뢰도가 양호하였으므로 19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리커트형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과 보상감은 높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각 요인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자료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였고, 부부간, 세대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쌍체 t검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부모의 상황변인, 부양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부양 부담감 및 보상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

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의 전반적인 경향과 부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쌍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부담감 전체는 신세대 남편과 부인의 점수가 각각 2.17과 2.32로, 중년기 남편과 부인의 점수는 2.24와 2.37로 나타났으며 두세대 모두 남편보다는 부인이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신세대, 중년기 부부 모두 죄책감, 심리적 부담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외에 신세대와 중년기 부인은 육체적 부담, 사생활 부족에서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신세대 부부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부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생활부족,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의 영역에서 신세대 부인은 남편보다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죄책감 영역에서는 남편의 부담감 점수가 부인 보다 더 의미있게 높았다.

개성을 중시하며 개인주의 가치관을 지닌 신세대라 하더라도 노부모 부양은 부인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며 남편의 경우 실제 부양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부모의 부양책임을 자신의 역할로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높음을 볼 때, 가족주의 가치관 중에서 노부모 부양에 관련된 의식은 아직도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중년기 부부의 경우 하위 영역별로는 경제적 부담 영역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사생활부족, 육체적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 영역에서 부인의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년기가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으며, 중년기 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집 단	신세대 (N=207쌍) 빈도 (%)	중년기 (N=196쌍) 빈도(%)	변 인	집 단	신세대 (N=207쌍) 빈도 (%)	중년기 (N=196쌍) 빈도 (%)
가족내 지위	외(며느리)아들	25(12.1)	15( 7.7)	(시)부모 남 수입 정도	부모 수입 없음	50(24.2)	104(53.1)
	만(며느리)아들	72(34.8)	84(42.9)		겨우 유지될 정도	27(13.0)	23(11.7)
	둘째(며느리)아들이하	110(53.1)	97(49.5)		보통	90(43.5)	49(25.0)
(시)부모 남 생존 여부	두분 모두 계심	126(60.9)	48(24.5)	가족 형태	여유의 수입	40(19.3)	19( 9.7)
	어머니만 계심	65(31.4)	124(63.3)		확대가족	38(18.4)	45(23.0)
	아버지만 계심	16( 7.7)	23(11.7)		핵가족	169(81.6)	150(76.9)
(시)아버 지 연령	50대	28(19.0)	- ( - )	남편의 학력	고졸이하	63(30.5)	93(47.4)
	60대	86(58.6)	9(12.5)		전문대졸 이상	144(69.5)	103(52.5)
	70대	29(20.4)	43(59.7)	남편의 직업	단순노무·숙련공	15( 7.7)	21(10.7)
	80대	4( 2.0)	20(26.4)		자영상공업	35(16.9)	55(28.1)
(시)어머 니 연령	50대	72(37.7)	- ( - )	사무직	사무직	87(42.0)	51(26.0)
	60대	95(49.7)	41(24.0)		전문·자본가	63(30.4)	56(28.1)
	70대	23(12.1)	85(50.3)	부인의 학력	고졸이하	92(44.5)	141(72.0)
	80대	1( 0.5)	44(25.1)		전문대졸 이상	115(55.5)	55(28.0)
(시)아버 지 건강상태	아주건강	63(30.4)	24(12.2)	부인의 취업	무 유	143(69.1)	141(71.5)
	보통	70(33.8)	37(18.9)		150만원미만	78(37.7)	39(19.9)
	불편함	14( 6.8)	10( 5.6)	150-200만원미만	45(21.7)	49(25.0)	
(시)어머 니 건강 상태	아주건강	44(21.3)	27(13.8)	수입 정도	200-250만원미만	39(18.8)	47(24.0)
	보통	104(50.2)	96(49.0)		250만원이상	43(20.8)	61(31.1)
	불편함	43(20.8)	50(25.5)				

\*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였으므로 사례수 및 빈도에 차이가 있음.

인이 자신의 노화과정에 있으면서 연로한 시부모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과중한 부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죄책감 영역에서는 남편의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중년기 남편은 부계가족제도하에서 아들로서 노부모 부양책임을 강하게 느끼나 직업활동으로 인하여 써비스 부양을 하기 힘든 여건에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며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죄책감의 원인이 될수도 있다. 결국 남편은 노부모 부양 의무감만 높게 갖고 있으며 실제로 부양을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인에 비해 다른 부담감은 모두 낮으나 죄책감 영역에서만 남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Brody(1985)는 딸이 어머니에 대하여 충분한 부양

을 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어린시절에 부모가 제공하였던 보살핌에 대한 상호호혜성을 실천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하였는데, 본연구의 결과에서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사료된다.

문항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신세대와 중년기 모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마음에 걸린다(2.80, 2.98)'가 가장 높았으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2.76, 2.90)',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인해 초조하고 불안하다(2.68, 2.81)'는 순으로 부담감을 느꼈다.

신세대와 중년기 부인들의 경우, '시부모님을 돌보아 드려야한다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2.72, 2.89)', '시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표 2〉 척도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변인	하위 영역	문항 수	신뢰도 계수
부양 부담감	사생활 부족	7	$\alpha = .89$
	육체적 부담	3	$\alpha = .72$
	긴장감	5	$\alpha = .78$
	심리적 부담	6	$\alpha = .74$
	경제적 부담	4	$\alpha = .84$
	죄책감	3	$\alpha = .77$
부양 보상감	인정 받음	5	$\alpha = .85$
	땀땀함	2	$\alpha = .77$
	인간적 성숙	3	$\alpha = .71$
	관계 향상	5	$\alpha = .84$
	가사·육아도움	4	$\alpha = .76$

마음에 걸린다(2.58, 2.78)'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외에 신세대 부인은 '시부모님때문에 가고 싶을 때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2.58)', 중년기 부인은 '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2.71)'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건데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은 남편보다는 부인 즉,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며느리가 아들이나 딸보다 시부모를 부양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사생활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국내 선행연구(육선화 등, 1994)와도 일치한다.

Horowitz(1985)에 의하면, 아들이 딸보다 부양부담감을 적게 느끼는 것은 아들이 자식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은 정서적 지지나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거의 딸과 같은 비율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도구적인 서비스, 손이 많이 가는 서비스를 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성에 적합한 행동에 대한 문화적 정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Brody, 1981).

Glicksman(1994)도 노부모 부양 부담에 있어서 부양 자체가 문화적 규범이나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의

해 주로 여성이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부양 부담 수준에서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계가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가족생활하에서는 노부모 부양 부담감이 성에 따른 역할 분담 때문이라기 보다는 시부모 부양을 며느리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편은 아들로서의 당연한 도리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 모두 죄책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연구의 대상에서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핵가족의 비율이 더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죄책감도 노부모 부양 부담감의 한 형태로 나타날라 예측할 수 있다.

## 2. 신세대와 중년세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비교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신세대 남편과 중년기 남편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비교한 결과 〈표 4〉, 부담감 전체에서 중년기 남편의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하위영역별로도 심리적 부담, 죄책감 영역에서 중년기 남편의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편의 경우 노부모가 더 연로하기 때문에 많은 염려로 인한 부담감이 클것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다중역할과 직업생활에서 오는 부담감등이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신세대 부인과 중년기 부인의 노부모 부양 부담감은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표 4〉, 하위영역별로는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부담, 죄책감 영역에서 중년기 부인의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것은 40대가 부양의무감과 부양행동이 가장 높으며 며느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양스트레스도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김송애·조병은, 1991; 송현애, 1986; 이신숙, 1994; Lang과 Brody, 1983)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양의 책임을 전담하는 며느리의 연령증가와 더불어 노부모도 노



〈표 3〉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의 전반적 경향

	노부모 부양 부담감의 내용	신세대 부부			중년기 부부		
		남편	부인	Paired-t	남편	부인	Paired-t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I 요인 사생활 부족	가고 싶을 때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음	2.42 .72	2.58 .75	-2.93**	2.45 .71	2.55 .71	-1.67
	시간을 많이 빼앗김	2.07 .64	2.30 .80	-3.90***	2.12 .51	2.41 .68	-5.02***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들고 고립되는 듯한 느낌	1.87 .63	2.25 .84	-6.14***	1.91 .57	2.15 .72	-4.12**
	사생활을 충분히 가지지 못함	2.07 .69	2.30 .79	-4.22***	2.06 .66	2.34 .74	-4.69***
	하루고 마음먹은 일을 하지 못해 아쉬움	2.09 .75	2.33 .82	-3.75***	2.07 .64	2.37 .72	-5.03***
	취미 생활, 사회 활동 등에 사용할 시간이 부족	1.98 .66	2.16 .73	-3.25***	2.01 .62	2.25 .72	-4.05***
	자녀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소홀히 함	2.01 .65	2.14 .74	-2.43*	2.08 .67	2.26 .70	-2.98**
전체	2.07 .53	2.30 .65	-5.07***	2.10 .43	2.33 .53	-5.75***	
II 요인 육체적 부담	자주 찾아 뵈고 가사를 돌보는 것이 힘들	2.16 .67	2.55 .79	-6.46***	2.27 .70	2.57 .73	-4.52***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여 육체적으로 피곤	1.95 .64	2.14 .70	-3.36***	2.04 .64	2.27 .72	-3.76***
	가사 노동이 많아져서 육체적으로 피곤	1.99 .69	2.37 .75	-6.17***	1.99 .62	2.45 .74	-6.71***
	전체	2.04 .54	2.35 .59	-7.09***	2.10 .50	2.43 .57	-6.83***
III 요인 긴장감	자주 나를 나무라시고 불평을 하심	1.90 .68	1.97 .72	-1.26	1.97 .68	1.99 .74	-0.25
	배우자와 나 사이에 긴장이 발생	2.51 .72	2.55 .77	-0.75	2.58 .72	2.54 .81	0.71
	(시)부모님이 나를 조종한다는 느낌	1.92 .69	2.15 .77	-4.32***	1.99 .66	2.15 .71	-2.77**
	계속 부양해야 하는 데에 화가 남	1.78 .55	2.15 .73	-7.21***	1.82 .59	2.14 .71	-5.54***
	(시)부모님을 돕는 노력이 헛되고 소용없다는 느낌	1.79 .59	2.05 .70	-4.43***	1.72 .57	1.99 .66	-5.07***
	전체	1.98 .46	2.18 .55	-5.70***	2.02 .44	2.17 .55	-3.83***
IV 요인 심리적 부담	(시)부모님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림	2.59 .81	2.72 .76	-1.82	2.79 .77	2.89 .68	-1.67
	부양하는 문제로 신경을 써서 머리가 아픔	2.23 .78	2.48 .77	-3.97***	2.35 .70	2.63 .77	-4.49***
	(시)부모님의 많은 기대로 정신적으로 부담됨	2.29 .76	2.37 .77	-1.43	2.29 .72	2.36 .78	-1.13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거는 부양의 기대로 부담	2.19 .72	2.25 .76	-0.97	2.31 .72	2.46 .81	-2.34*
	(시)부모님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음	2.13 .68	2.29 .79	-2.95**	2.18 .69	2.33 .73	-2.70**
	(시)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초조 불안함	2.68 .73	2.55 .74	-2.45*	2.81 .72	2.68 .67	-2.71*
	전체	2.35 .49	2.44 .52	-2.46*	2.45 .45	2.56 .48	-2.82**
V 요인 경제적 부담	(시)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힘들	2.06 .73	2.23 .66	-2.80**	2.12 .65	2.24 .72	-2.04*
	부양 때문에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못함	1.96 .69	2.23 .72	-4.60***	2.05 .64	2.15 .67	-1.74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부담됨	2.11 .70	2.29 .73	-3.42***	2.12 .63	2.14 .66	-0.39
	부양 비용 때문에 저축할 여유가 없음	1.89 .59	2.00 .59	-2.32*	1.89 .61	1.93 .61	-0.94
	전체	2.00 .57	2.18 .54	-4.29***	2.04 .51	2.11 .55	-1.77
VI 요인 죄책감	(시)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마음에 걸림	2.80 .72	2.58 .66	4.30***	2.98 .69	2.78 .63	3.48***
	아들(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한다는 생각이 듦	2.76 .69	2.43 .66	6.02***	2.90 .72	2.71 .74	2.85**
	(시)부모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	2.56 .70	2.43 .73	2.23*	2.77 .69	2.67 .71	1.69
	전체	2.71 .58	2.48 .56	5.28***	2.88 .58	2.72 .56	3.29***
전체	2.17 .37	2.32 .40	-5.28***	2.24 .32	2.37 .38	-4.76***	

\* P<.05 \*\* P<.01 \*\*\* P<.001

〈표 4〉 신세대와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비교

구 분	남 편			부 인		
	신세대	중년기	t 값	신세대	중년기	t 값
사생활부족	2.07 .53	2.10 .43	-0.57	2.30 .65	2.33 .53	-0.63
육체적 부담	2.04 .54	2.10 .50	-1.22	2.35 .59	2.43 .57	-1.37
긴장감	1.98 .46	2.02 .44	-0.80	2.18 .55	2.17 .55	0.27
심리적 부담	2.35 .49	2.45 .45	-2.14*	2.44 .52	2.56 .48	-2.27*
경제적 부담	2.00 .57	2.04 .51	-0.72	2.18 .54	2.11 .55	1.29
죄책감	2.71 .58	2.88 .58	-3.07**	2.48 .56	2.72 .56	-4.29***
전 체	2.17 .37	2.24 .32	-1.90*	2.32 .40	2.37 .38	-1.42

\* p&lt;.05 \*\* p&lt;.01 \*\*\* p&lt;.001

쇠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자녀에게 보다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중년 부인의 경우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 3.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부양보상감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났다.

신세대 부부의 부양 보상감은 전체적으로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 $p < .05$ ), 중년기 부부의 부양 보상감은 부부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세대와 중년기 모두 노부모와의 관계향상, 떳떳함 등의 영역에서 보상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노부모 부양이 부담감이 크기는 하지만 가족주의 가치가 잔존해 있는 우리사회에서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자체가 아들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떳떳함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신세대와 중년기 모두 관계향상, 가사·육아도움 영역에서 남편의 보상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년기 부부의 경우 특히 인간적 성숙에서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가사도움에 있어서 실제 도움의 정도는 부인이 더 많이 지각할 것으로 여겨지나 부담감과 상쇄되어 남

편이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 모두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를 가장 큰 보상감으로 보았다. 주택비 절감 및 재정적 도움은 성인자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증가하나 특히 자녀양육의 사회적 복지가 미흡한 실정에서 노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인식은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노부모를 가사조력자로서의 역할만을 기대한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노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항별로는 신세대와 중년기 남편 모두 '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2.94, 3.11)', '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언제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2.86, 2.99)'에서 높은 보상감을 나타냈으며 이외에 신세대 남편의 경우 '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부모님과 회로 애락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2.86)', 중년기 남편의 경우 '부모님과 관계가 향상됨을 느낀다(2.98)'에서 높은 보상감을 느꼈다.

신세대와 중년기 부인 모두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표 5〉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의 전반적 경향

	노부모 부양 보상감의 내용	신 세 대 부 부			중 년 기 부 부		
		남 편	부 인	Paired-t	남 편	부 인	Paired-t
		평균 SD	평균 SD		X SD	X SD	
I 요인 인 정 받 음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주변 사람으로 부터 효자(효부)라고 인정받음	2.53 .63	2.44 .64	-1.91	2.57 .67	2.54 .58	0.71
	(시)부모님이 내게 감사한 마음을 가짐	2.62 .64	2.59 .72	0.58	2.71 .65	2.68 .72	0.55
	배우자로 부터 인정을 받음	2.52 .69	2.69 .70	-3.10**	2.58 .69	2.78 .66	-3.30***
	친척들이 나에게 잘 대해 주어 기쁨	2.48 .68	2.59 .72	-2.02*	2.57 .70	2.59 .67	-0.36
	(시)부모님으로 부터 인정을 받음	2.53 .69	2.63 .69	-1.88	2.71 .68	2.71 .73	0.00
	전체	2.54 .54	2.59 .56	-1.38	2.63 .52	2.66 .52	-0.73
II 요인 땀 땀 함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나의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 땀땀함	2.78 .66	2.71 .70	1.30	2.93 .72	2.91 .63	0.44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안도감	2.65 .69	2.54 .69	1.86	2.68 .70	2.73 .68	-0.84
	전체	2.72 .61	2.62 .63	1.78	2.81 .64	2.82 .58	-0.24
III 요인 인간적 성숙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나 자신의 노후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음	2.66 .68	2.53 .78	2.13*	2.75 .70	2.82 .68	-1.19
	나 자신이 인간적으로 성숙해감을 느낌	2.76 .61	2.72 .69	0.71	2.91 .68	2.91 .61	0.00
	나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할 수 있음	2.36 .59	2.32 .66	0.78	2.49 .64	2.47 .66	0.25
	전체	2.59 .50	2.53 .56	1.73	2.72 .53	2.73 .51	-0.39
IV 요인 관 계 향 상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시)부모님과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2.77 .59	2.68 .62	1.85	2.85 .60	2.85 .65	0.10
	(시)부모님과 회로애락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음	2.86 .64	2.72 .65	2.49**	2.87 .58	2.78 .62	1.76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향상됨을 느낌	2.79 .68	2.67 .71	2.32*	2.98 .64	2.75 .68	3.78***
	언제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있다는 느낌을 갖임	2.86 .67	2.60 .79	4.43***	2.99 .75	2.73 .75	4.13***
	(시)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갖는다	2.76 .71	2.67 .70	1.72	2.81 .65	2.66 .66	2.91**
	전체	2.81 .52	2.67 .55	3.42***	2.90 .48	2.75 .51	3.80***
V 요인 가사· 육아도움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	2.94 .66	2.79 .69	2.94**	3.11 .69	2.93 .68	3.31***
	가사에 도움을 받는다	2.68 .72	2.60 .78	1.39	2.61 .78	2.48 .77	1.84
	주책비가 절감되는 등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다	2.38 .82	2.26 .81	2.40*	2.13 .64	2.15 .67	-0.37
	(시)부모님께서 집을 봐주셔서 도움이 된다	2.47 .81	2.36 .90	2.07*	2.51 .80	2.45 .84	0.91
	전체	2.62 .57	2.50 .60	2.98**	2.59 .56	2.50 .58	1.99**
전 체		2.65 .42	2.59 .45	2.36*	2.72 .41	2.68 .41	1.42

\* P<.05 \*\* P<.01 \*\*\* P<.001

(2.79, 2.93)',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나 자신이 인간적으로 성숙해감을 느낀다(2.72, 2.91)'에서 높은 보상감을 느꼈으며 이외에 신세대 부인의 경우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시부모님과 희로애락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2.72)', 중년기 부인의 경우, '나의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 떳떳하다(2.91)'에서 높은 보상감을 느꼈다.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배우자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시부모님을 부양함으로써 친척들이 나에게 잘대해 주어 기쁘다'라는 문항에서는 부인의 보상감이 남편보다 의미있게 높았다. 배우자·형제·다른 친척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부양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Horowitz, 1985; Zarit, Reever & Bach-Perterson, 1980)고 하는데 부인의 경우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보상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4. 신세대와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 비교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신세대 남편과 중년기 남편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표 6), 하위영역별로는 인간적 성숙에서 중년기 남편의 보상감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는 인간적으로 성숙의 시기이며, 자신의 노후준비도 하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도 터득하며 부모에 대한 효성이 더욱 깊어지면서 중년기 남편이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을 신세대 남편보다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세대 부인과 중년기 부인간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은 전체적으로 중년기 부인의 보상감이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p < .05$ ), 하위영역별로는 떳떳함, 인간적 성숙에서 중년기 부인의 보상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세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고선주, 1990; 조병은·신화용, 1992)와는

상이한 결과로 기존연구가 보상감을 육아도움, 장담그기, 집보기, 자녀교육등의 가사도움에 한정된 질문에 의한 연구여서 심리적 보상감이 많이 포함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은 성인자녀에게 있어 가사도움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심리적 보상감의 관점에서도 논의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 노부모의 상황변인과 부양자 부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부담감과 보상감을 분석한 결과, 노부모와의 동거여부, 노부모의 연령, 노부모의 건강수준, 노부모의 수입정도에 따라 집단간(신세대 남편·부인, 중년기 남편·부인)에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을 담당하는 성인자녀에게 부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밝혀냈으며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과 보상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부부의 비율이 적었다는 점과 응답자들이 노부모의 부양에 따른 부담감과 보상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한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신세대 부부와 중년기 부부가 느끼는 부양 부담감은 사생활부족,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죄책감으로 나타났으며 부양 보상감은 인정받음, 떳떳함, 인간적 성숙, 관계향상, 가사·육아도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세대와 중년기 모두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은 부인이 높았으며 보상감은 남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부모 부양 부담감은 중년기 남편이 신세대 남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세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노부모 부양 보상감은 남편의 경우에는 세

〈표 6〉 신세대와 중년기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보상감의 비교

구 분	남 편			부 인		
	신세대	중년기	t 값	신세대	중년기	t 값
인정받음	2.54 .54	2.63 .52	-1.68	2.59 .56	2.66 .52	-1.26
몇몇함	2.72 .61	.281 .64	-1.55	2.62 .63	2.82 .58	-3.34***
인간적 성숙	2.59 .50	2.72 .53	-2.39**	2.53 .56	2.73 .51	-3.92***
관계 향상	2.81 .52	2.90 .48	-1.85	2.67 .55	2.75 .51	-1.58
가사도움	2.62 .57	2.59 .56	-0.50	2.50 .60	2.50 .58	-0.02
전체	2.65 .42	2.72 .41	-1.75	2.59 .45	2.68 .41	-2.20*

\* p<.05 \*\* p<.01 \*\*\* p<.001

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중년기 부인의 보상감이 신세대 부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신세대와 중년기 부인 모두 부담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반면, 남편들이 보상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남편이 부양을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서 보상감이 높은 것은 노부모 부양이 일차적으로 며느리에 의해 수행되면서도 남편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르는 보상감을 증대시키고 부담감을 감소시킬수 있도록 아들, 며느리의 부양자 역할 및 노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성인자녀의 새로운 관계규범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양을 받고 있는 노부모가 느끼는 보상감과 부담감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보상감과 부담감이 성인자녀-노부모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31-56.
- 2) 김송애·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3) 손승영(1992). 노부부의 가족구성 및 가족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4) 윤순덕·한경혜(1994). 도시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 14(2), 105-120.
- 5)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조병은·신화용(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7) Brody, E. M.(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1), 19-29.
- 8) Cantor, M. H.(1983). Strain among caregivers :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6), 597-604.
- 9) Hinrichsen, G. A., Hernandez, N. A. & Pollack S. (1992). Difficulties and rewards in family care of

- the depressed older adult. *The Gerontologist* 32(4), 486-492.
- 10) Horowitz, A.(1985). Sons and daughters as caregivers to older parents. *The Gerontologist* 25 (6), 612-617.
  - 11) Kosberg, J. I. & Cairl R. E.(1986). The cost of care index : a case management tool for screening informal care providers. *The Gerontologist* 26(3), 273-278.
  - 12) Lang A. M. & Brody E. M.(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s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 193-202.
  - 13) Lawton, M. P., Kleban, M. H., Moss, M., Rovine, M. & Glicksman, A.(1989). Measuring caregiving appraisal. *Journal of Gerontology* 44(3), 61-71.
  - 14) Mammen Sheila & Sanders Gregory (1992). The elderly, family, and society : intergenerational inequ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winter), 46-51.
  - 15) Scharlach, A. E.(1994). Caregiving and employment :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les?. *The Gerontologist* 34(3), 378-385.
  - 16) Spitze Glenna, John R. Logan, Genevieve Joseph & Eunju Lee(1994). Middle generation roles and the well-being of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49(3), 107-116.
  - 17) Stoller E. P. & Pugliesi, K. L.(1989). Other roles of caregivers: competing responsibilities of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44(6), 231-239.
  - 18) Walker, Alexis J., Sally, S. K, Martin & Jones, Laural L.(1992).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 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 47(3), 130-139.